

2023 대학원생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수기 공모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수기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2023 대학원생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수기 공모전

CONTENTS

최우수상	메타버스와 연구, 비즈니스, 삶(이00).....	2
	“전공 속의 세상을 더 깊게, 또 전공 밖의 세상을 더 넓게”(조00).....	9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알게된 계기(박00).....	15
우수상	2022년 가을학기 iSNUC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황00).....	19
	메타버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알게된 경험(한00).....	24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박00).....	28
장려상	창업,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이00)	31
	친환경 학생활동, 지속가능성을 찾아 나선 우리 공동의 여정(이00).....	33
	더닝 크루거 효과 : 우매함의 봉우리를 벗어나며(김00).....	36
	스스로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회복할 수 있었던 시간(김00).....	39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도 습득할 수 있었던 41 매우 값지고 뜻깊은 경험(이00)	
	다른 사람의 글을 읽던 눈으로 내 공부를 본 경험에 대하여(장0).....	43
	삶의 본질적 여유와 의미를 깨닫게 된 순간(장00).....	46
	창업을 향한 새로운 꿈과 가시적인 계획을 세우게된 기회(전00).....	49
	“창업하고 싶다.”(이00).....	51
	“Quo Vadis?” 스타트업 꿈을 꾸고 있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는 53 대학원생들에게(박00)	

최우수상



메타버스와 연구, 비즈니스, 삶

법과대학 법학과 이OO

들어가며

OO아, 메타버스란 무엇인가?라는 유튜브 좀 봐봐”

위 이야기를 들었던 2021년 8월 나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다. 그것도 60대 어머니로부터. 이후 2021년 12월 어떤 모임에서 명함을 주고 받는데, 제페토 아바타가 그려진 명함을 받았다. 2023년 1월 까지 나는 종종 메타버스에 대한 기사들만 피상적으로 보았을 뿐, 메타버스의 개념, 활용 가능 범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법학과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하루하루 바쁘게 지나갈수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고, 메타버스를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나를 그 기회에 풍당 빠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이와 같이 메타버스에 대해 알고 싶다는 갈망이 지속되고 있던 와중에, “대학원생을 위한 실습형 메타버스 입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학교 메일을 발견했고, 호기심에 신청 링크를 눌러 보았다. 그런데 본 프로그램은 아래 학생들에게 추천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모두 나를 지목하는 문구였다.

“메타버스에 대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몰라 기본 개념을 익히고 싶은 학생”

“메타버스에 관심은 있었으나 관련 플랫폼을 이용해 본 적은 없어 배워보고 싶은 학생”

“메타버스의 활용이 본인의 연구, 학업 및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고 싶은 학생”

바로 신청하였다. 이 대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1월 26일에는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 연휴 동안 업무를 미리 해 놓아야 했던 어려움은 있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다. 당일 눈이 많이 내려 일찍 서둘렀더니 강의 시간보다 1시간 전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느낀 초석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활동 내용

1. 개요

아래 표는 기 공지된 일정을 바탕으로 실제 진행된 프로그램 일정을 기술한 것이다.

시간	내용	강의자
10:00 ~ 11:00	프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아이빛연구소 신용현 대표
11:00 ~ 12:00	메타버스 입문 강의	김상균 교수
12:00 ~ 13:00	점심(동원관)	
13:00 ~ 13:40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강의	마호 (메타스페이스 컴퍼니 마정연)
14:00 ~ 17:30	제페토 실습	태오 (메타스페이스 컴퍼니 이아린)
17:30 ~ 18:00	실습결과물 소개, 소감 발표	아이빛연구소 신용현 대표
18:00 ~ 18:10	수료식(사진 촬영, 수료증)	

2. 각 일정별 특징

가. OT

아이빛연구소 신용현 대표님으로부터 프로그램 취지 및 일정을 소개받았고, 수강생 20여명 간 자기소개를 통해 이 과정에서 얻고자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ice-breaking하였다. 수강생들의 대다수가 사범대학 소속으로 교육 분야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나와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더욱 설레었다.

나. 메타버스 입문 강의

경희대학교 김상균 교수님께서 “메타버스와 연구, 비즈니스, 삶”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셨다. 메타버스의 개념 및 특징,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 탐구, 메타버스 서비스의 종류 등에 대한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주었는데, 이로 인해 막연한 거대담론처럼만 느꼈던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고, 메타버스를 어떻게 응용하여 현실에 접목시켜야 할지, 어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이용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강의

각 플랫폼에 대한 세부 이해를 돕는 시간이었다. 제페토 공식 크리에이터 마호 강사가 제페토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었고, 빌드잇 프로그램 설치를 도와 주었다. 휴대폰에 제페토 앱조차 깔아본 적 없는 나로서는, 처음으로 제페토 아이디를 만들고 노트북에 빌드잇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는데, 아바타를 고르고 앱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라. 제페토 실습

수강생 전체를 2개 조로 나누어 빌드잇 프로그램을 통해 오브젝트를 제작 및 활용해 실습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속한 조는 제페토 공식 크리에이터 태오 강사가 진행을 하였는데, 방향키/단축키/그룹핑/회전/이동/월드 등 스킬을 연습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특히, 마우스와 키보드를 동시에 작동시키며 오브젝트를 여러 방향/시각에서 바라보는 컨트롤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어려웠는데, 옆자리 분들과 서로 돕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배워나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만의 공간 꾸미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공간 그림들 중 하나를 선택해 제페토 빌드잇 프로그램에서 유사하게 해당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다. 벽 타일, 창문, 책상, 의자, 침대 등 오브젝트들을 하나하나 찾고 색깔을 입히며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태오 강사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외침에 도전정신이 생겼고, 집념으로 무장할 수 있었다.

다음에 제시한 위쪽 그림은 내가 골랐던 예시 공간그림이고, 아래쪽 그림은 내가 해당 그림을 보면서 빌드잇 프로그램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공간이다.



[내가 만든 메타버스 공간]

내가 속한 조의 수강생들은 서로 만든 공간들을 구경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았는데, 내가 만든 공간을 본 분들이 "디테일이 잘 살아있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보람을 느꼈다.

마. 실습결과물 소개 및 소감 발표

실습이 끝난 후, 신용현 대표님으로부터 메타버스 관련 실습 강의를 다수 해 보았지만, 이번 실습생들의 몰입도가 아주 높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8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느낌이었다. 수강생들이 만든 실습결과물을 강의실 앞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소감 발표도 하였다. 이후, 본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는데, 설문 종료 후 결과지를 보니, 역시나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사. 수료증 수여

아래 사진과 같이 교육과정 이수 인증서까지 받게 되어 뿌듯하였다.



[수료증]

3. 소결

프로그램 일정이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고, 어느 한 세션도 유익하지 않은 세션이 없었다. 이론에 대한 습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사분들로부터 밀접한 코칭을 받으며 현장실습을 해 볼 수 있어 메타버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던 경험이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 전반적 소감

가. 유익했던 점

본 프로그램 덕분에 메타버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메타버스의 개념, 활용 현황 등에 대하여도 알게 되었지만, 직접 관련 플랫폼을 이용해 볼 수 있었고, 나아가 나의 연구, 학업 및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장이 마련되어 유익했다. 평소에 게임을 많이 해 보거나 인테리어 디자인 경험에 있는 사람은 더 메타버스에 익숙하고 해당 플랫폼들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동시에 나와 같이 게임에도, 꾸미기에도 능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겠다”, “익숙해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나. 아쉬운 점

테오 강사가, 스마트폰으로 제페토 앱을 깔아서 실제로 수강생들에게 같은 디지털현실에서 상호작용하는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해 보게 하려고 준비해 오셨는데, 제페토 앱의 불안정성, 교내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시간 제약 등으로 결국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 강사가 매우 아쉬워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아쉬움이 들었다.

2. 구체적 성과

가. 지식 습득

김상균 교수는 메타버스를 "디지털 현실"이라고 정의하였다. 교수가 예전에는 메타버스를 "가상 공간"이라고 일컬었던 적이 있었으나, 고민해 보니 "가상"도 아니었고, "공간"도 아니었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 한마디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활용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들에 대한 지식도 얻었는데, 예컨대,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의 경우, 2D이나, 나의 실제 사진이 보여질 수 있고, 파일, 링크 등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한 공간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기본 25명까지이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반면, "제페토"의 경우, 나의 실제 사진, 영상이 보여질 수는 없으나, 음성 인식은 가능하며, 내가 마이크를 통해 이야기하면 해당 내용이 나의 아바타 위에 말풍선으로 뜨고, 파일, 링크 등 업로드가 불가하며, 한 공간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최대 16명이라는 제약이 있으나, 3차원 공간이어서 좀더 입체감, 현실감이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파일, 링크 등 업로드가 가능한 플랫폼이 더 활용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으나, 플랫폼 발전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나. 연구 및 학습 동기 향상

법무법인에서 규제 업무(공정거래업무)를 수행하면서 IT기업들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속가능한 형태로 돌아가려면 어떠한 제도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의 변화는 빠르는데, 법무법인에서는 기업보다 그 빠른 변화를 같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 비즈니스 조직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최근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상사 조직으로 이직을 하였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 거버넌스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이었다. 이에 작년에 경제법 분야 박사과정에 지원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고리즘 기반의 담합 규율을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금번 메타버스 입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좀더 구체화된 리서치, 그리고 구체화된 가설 설정 및 검증 절차를 고민해 볼 수 있게 되었다(김상균 교수님이 요새 메타버스에 관한 논문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몇 개 찾아서 읽어보고 싶은 욕구도 생겼다).

다. 직장에서의 적용

직방의 경우, 오프라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가상 사무실만 운영한다고 한다. 법조직역에서도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이 좀더 긍정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용 메타버스 서비스의 등장으로 업무 회의를 메타버스에서 한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회의실 공간대로 구성, 기획, 디자인, 배치가 가능하고, 나아가 상시 사무실을 열어 두고 이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입사원 및 경력직 교육, 업무 관련 교육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를 위해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교육 등을 메타버스에서 실행한다면 여러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나의 기여점 발견

게더타운의 경우, 기업가치가 2021년 이후 약 20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이라고 한다. 메타버스가 실생활에 활용되는 범위가 확대될수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메타버스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 물리적 현실 간 간극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입법 지원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메타버스에서 재능기부 내지 지식나눔을 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메타버스 속에서 나만의 변호사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물리적 현실에서 쉽게 법률 자문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의 공간에 들어와서 같이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법적 조언을 줄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다.

3.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 점심 시간 동안 네트워킹

다른 수강생과 교류했던 경험을 꼽고 싶다. 점심시간은 식권을 받아 자유롭게 동원관에서 식사하는 시간이었는데, 오전에 서로 자기소개를 하여 ice breaking을 하였던지라 함께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낯설지 않았기에 눈이 마주친 수강생 2명과 식사를 같이 하였다. 한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 다른 한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므로 모두 석사과정을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평소에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내가 속한 법조계가 아닌 다른 분야(교육)에 종사하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교육 현황(어렸을 때부터 휴대폰에 익숙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줌 교육 때 겪었던 어려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각되는 분야, 코딩 교육의 현실 등), 학생들이 디지털공간에서 게임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 기준이 없어 곤란했던 상황 등을 들었는데, 선생님 중 한 분이, 나에게 변호사로서 입법적 조치 마련에 힘써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 새삼스레 직업적 책임감이 들면서 내가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좋은 기운을 주셨던 분들이라 다시 만나고 싶다.

프로그램 활동 내용

1.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팁

가. 사전 기사 검색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전 메타버스에 관한 최근 기사들을 리서치해 보면서 최근 메타버스에 관한 활용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강의 때 더욱 적극적인 발언을 하면서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다.

나. 강의 중 언급된 회사, 프로젝트 등 검색

메타버스에 익숙하지 않은 나로서는 강의 중간 중간 나오는 실제 회사 사례, 플랫폼 이름 등이 낯설어, 가져온 노트북으로 검색을 해 가며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가 더 귀에 쏙쏙 들어왔다. 예컨대, 일본 Ory Laboratory(장애인들이 직접 출근해서 일하는 데 제약이 있으니, 집에서 로봇을 조종하며 원거리 근무로 카페 알바 일을 하는 곳), 로블록스(Roblox), 더 샌드박스(The SandBox) 등에 대해 검색해 가며 강의를 들었는데, 이 또한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 추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제언

본 프로그램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도 추천한다. 이번 1월 26일 프로그램에 이어 2월 1일~2일 진행하는 실습형 AI 입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AI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 관련 기술에 대해서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본 프로그램을 끝내고 귀가하는 길에 AI 입문 교육 프로그램을 바로 신청하였다.

라. 끈을 놓지 말기

본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 않아야 어떤 형태로든 응용이 가능할테고, 그래야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추후 회고할 때 더욱 의미있는 경험을 남을 것이다.

2. 제언사항

플랫폼 실습 과정에서 강사와 함께 오브젝트를 하나 놓고 직접 해당 오브젝트를 돌려가며 편집해 보는 '기초 실습 과정'을 가지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활용 tool을 소개받은 후 바로 각자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지라 처음에 헤매었는데, 같은 오브젝트를 놓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보고 같은 색깔을 입혀보는 등의 연습을 함께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좀더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소결 - 다른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음

앞서 언급한 1항 기재 팀들과 함께 다른 학우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메타버스 분야에서 저명한 강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커리어에 맞춰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 2월 1일~2일 진행하는 AI 입문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같은 경제법 분야에서 변호사 일을 하며 서울대 박사 과정을 하는 친구)에게 추천하였다.

결론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적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다. 김상균 교수님이 2001년 및 2021년 시가 총액 기준 전세계 1순위부터 10순위까지의 기업 리스트를 보여주었는데, 2001년 리스트 대비 2021년 리스트에 하나의 회사(Microsoft)만 그대로 있었다. 교수님이 10년 후 해당 리스트에는 한국 회사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와 법령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 않고 내가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준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나에게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처음 알려준, 메타버스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했던 60대 어머니한테 내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내용들을 전달해 줄 예정이다. 명함에 제페토 아바타를 삽입할지 여부는 고민이다!

“전공 속의 세상을 더 깊게, 또 전공 밖의 세상을 더 넓게”

사범대학 AI융합교육학과 조OO

참여 프로그램 소개

대학원생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교육 프로그램은 경력개발센터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인프런(<https://www.inflern.com/>)’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같은 컴퓨터 활용 관련 강의 중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2022년 12월~2023년 1월 두 달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다.

AI 융합 교육학과에 재학하면서 python, R, Django, PyTorch 등과 같은 여러 데이터 분석과 프로그래밍 관련 내용들을 조금씩 공부해 왔다. 대학원에 와서 처음 배우는 프로그램이 낯설고 어려워 수업과 과제 외의 별도의 공부를 방학 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마침 메일로 관련 안내가 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얼른 신청했다. 신청 당시에 신청 동기, 공부할 내용 등을 적게 되어 있었는데, 공부하고 싶던 분야(웹페이지 구축, 데이터 분석 관련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가 있었던 참이라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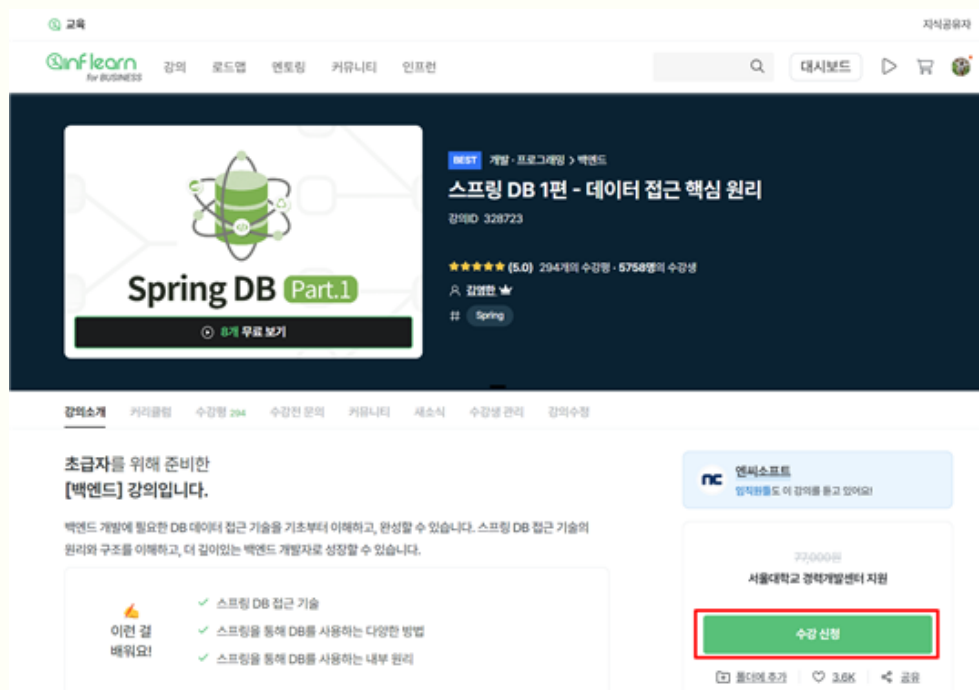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소감

AI 융합교육학과에 재학하면서 나는 AI 관련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두루 익히고 싶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융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생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내용들을 스스로 탐색하여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사전 정보들을 정리하여 알려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맛보고 싶기도 했고, 또 특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웹 사이트 구축이나 데이터 처리 등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기도 했다.

AI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초부터 공부를 시작한 나는 도움이 될만한 여러 강의나 자료들을 두루 살펴보았었는데,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나 각종 포털 사이트 등에 수많은 자료가 있지만, 기초 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단계별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는 의외로 많지 않았고, 괜찮은 자료도 올라온 지 시간이 좀 지난 자료는 옛날 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빠르게 바뀌는 컴퓨터 기술들을 익히기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

맞춤형 리터러시 향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제공하는 ‘인프런’ 사이트는 자신이 원하는 연구 분야에 맞게 관련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개발,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등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었고, 교양 수준의 기초 내용부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깊이 있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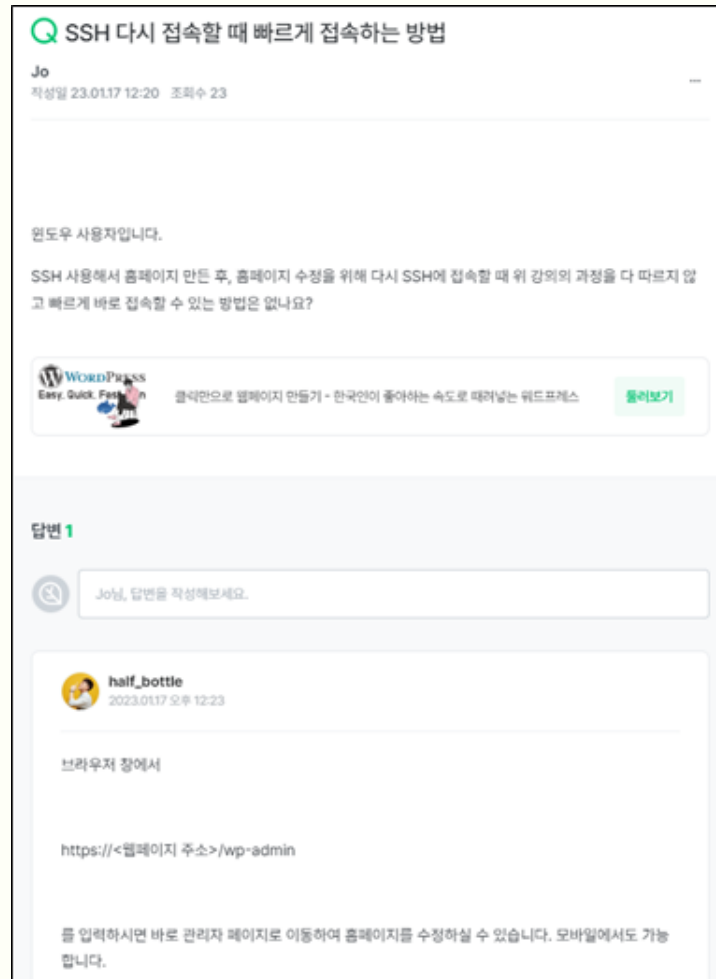
까지 폭넓게 다루는 사이트였다. 또 같은 개발 언어를 가르치는 강의라도 초급/중급 등으로 난이도가 자세히 나뉘어 있어서 나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었고, 강의를 따라가는 데 필요한 코드 자료들과 그 활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었다. 또 이전에 올라온 강의라도 강의 업데이트 후 시간이 지나 프로그램에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추가 설명이 올라와 있어서 최신 프로그램 버전에 맞게 공부할 수 있었다.



[인프런 사이트 수강 신청 안내 화면]

수강권이 30만 원으로 넉넉하게 지급되어서, 보통 5~10만 원 정도인 강의를 여러 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다. 워드프레스 학습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강의('클릭만으로 웹페이지 만들기')를 수강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바로 심화 강의('워드프레스 속성 마스터 과정')까지 이어서 수강하면서 웹페이지 제작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강의를 듣다가 모르는 점이 생겼을 때 질문을 올리면, 굉장히 빠르고 자세하게 강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달아주신다는 것이다. 워드프레스로 웹페이지를 만들다가 관리자 모드 접속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신속하게 답변이 달렸다는 알람이 와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질문을 올렸더니 또 곧바로 답변이 달렸다.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하는 것보다 강사님과의 소통이 더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하며 학습을 계속할 수 있었다. 기존 인터넷 자료로 학습할 때에는 자료를 따라가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 막막했었는데, 인프런 강의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 강의를 제작한 강사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내가 올렸던 질문과 강사님의 답변. 질문을 올린 지 3분 만에 답변을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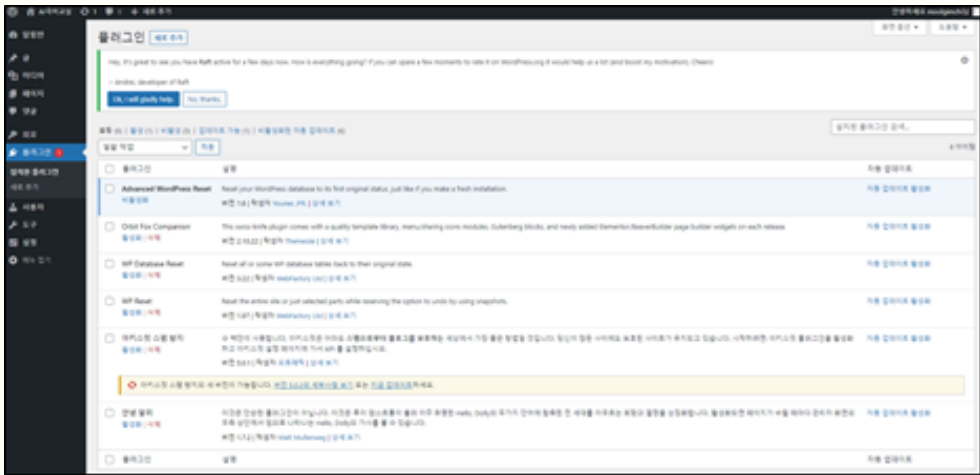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구체적 성과 및 실적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기존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광고 없는 독자적인 웹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간단하게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사이트가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기능까지 자세하게 지원해주지 않았고, 본격적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워드프레스는 이용법이 비교적 복잡해서 온라인상의 조각난 자료들을 찾아가며 부분적으로 익히고 있었는데, 좀처럼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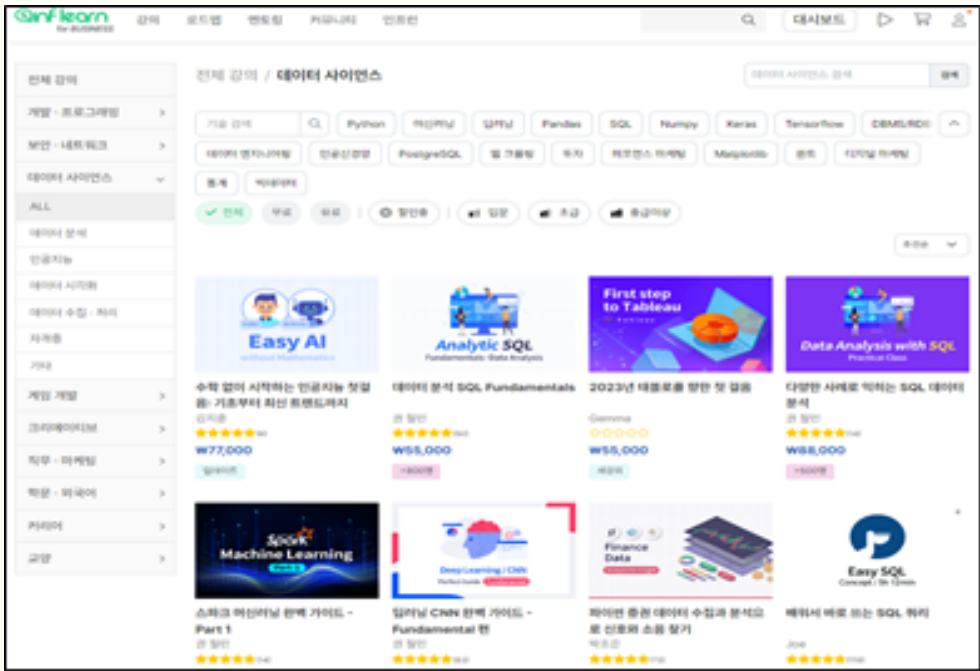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에 선정된 후에는 수강권을 이용해 바로 워드프레스 관련 강의 두 개를 등록하여 어렵지 않게 웹페이지 제작을 학습할 수 있었고,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웹페이지를 구축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목표한 것은 기존에 이용해 본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이후 연구를 이어 나가는데 가장 활용성이 높아 보이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추가로 학습하는 것이었다. 인프런 안에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Pyt

hon, Pandas, Numpy, R, Kaggle, Excel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의가 난이도별로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이 중에서 나는 R과 Excel을 선택하여 강의를 신청하였다. 기초적인 내용만 알고 있던 R은 기초를 넘어 심화 학습을 이어 하고 있으며, 잘 사용하고 있었지만 고급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부족함을 자주 느꼈던 Excel은 강의를 통해 평소에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 분석 기능을 심화하여 익히고 있다.



[웹페이지 제작 중인 화면]



[웹페이지 제작 중인 화면]

학업과 연구의 지속을 위 데이터 리터러시는 꼭 갖춰야 할 능력 중의 하나가 된 것 같다. 특히 전공이 AI 융합 교육인 나는 평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학습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맞춤형 리터러시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 수업 종강 후 시간을 강의를 들으면서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또 계획만 하고 있던 학습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어서 보람찼다.

참여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건의하거나 제안할 점

프로그램이 도움이 많이 되어서,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열려서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졸업이 가까워져 와서 졸업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으면 참여하고 싶고, 혹시 없으면 생기면 좋을텐데 하는 마음이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추천하며

학생 때는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는 줄 잘 몰라서 참여를 많이 못 했었다.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는 경력 개발센터 등 다양한 교내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안내 메일을 유심히 본다. 앞서 소개한 데이터 리터러시 관련 프로그램 외에도 메타버스 입문 교육 프로그램, 영어 의사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튜터링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 특강 등 다양한 기회가 많이 열려 있으니 안내 메일을 잘 챙겨보다가 관심 가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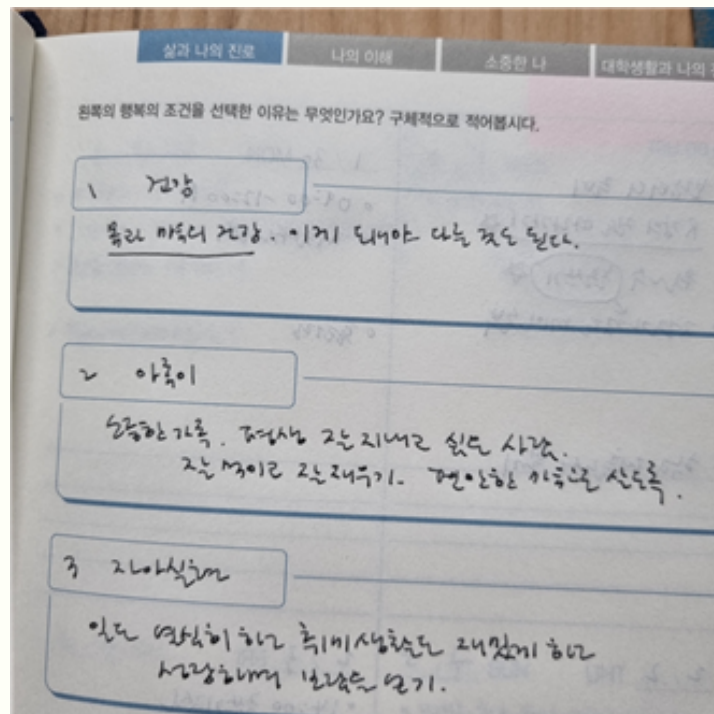
평소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을 추가로 더 공부하고 싶은지 생각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는 인공지능, 컴퓨터 학습에 관심이 있어 관련 프로그램들에 주로 신청해서 참여했었다. 메타버스 교육을 통해 제페토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 사용을 익히고, Python 강좌를 통해 프로그래밍 심화 학습을 하기도 하고, 글로벌 리더 특강을 들으며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자세히 알 수 없었던 다른 과의 학습 내용을 흥미 있게 들을 수 있었다.



[대학원생을 위한 실습형 메타버스 입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 중 찍은 사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의 종류 및 플랫폼별 특징에 대해 파악하고, 제페토 프로그램을 이용한 메타버스 맵 제작 실습을 해볼 수 있었다.]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분야면 신청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는 평소에는 영어 회화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 올해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그 준비를 위해 영어 튜터링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전화 영어 수업과 영어 글쓰기 첨삭 등을 받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로 영어 학습 의욕이 크게 높아져서 영어 공부량이 부족 늘게 되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내 전공과 관련된 역량도 향상하면서, 그 외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열정적으로 공부하게 되어 좋았다.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는 진로 수첩 배포 같이 강의 이외의 것도 있다. 수첩을 한 부 구해 사용하고 있는데, 매월 나 자신과 나의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가 있어 사용하면서 자신을 성찰해보게 되고, 뒤에는 동문들의 직업 관련 경험담이 실려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 세계를 탐구해볼 수 있다. 이처럼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 여러 면에서 고민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작성한 진로 수첩의 일부. 매월 진로 탐색 및 설계와 관련된 페이지가 있다. 제시된 칸을 채우면서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인공지능, 시뮬레이터 게임, NFT 플랫폼, 가상현실 등 배우고 익혀야 할 새로운 세상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바뀌어 가는 세상을 멀리서 바라만 보지 않고 직접 시도해 보면 신인류가 만들어가는 다양한 세상에 대해 더 가깝게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내 전공 속의 세상을 더 깊게, 또 전공 밖의 세상을 더 넓게 경험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알게된 계기

의과대학 종양생물학과 박00

참여 프로그램 소개

2022년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한 "대학원생을 위한 체험형 창업 부트캠프 프로그램" 참여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체험교육 전문 스타트업인 '아자스쿨'과 함께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초반에 '아자스쿨'에 대해서도 소개 받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동안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아자스쿨'을 예시로 생각하며 더욱 이해가 잘 될 수 있었다.

'체험형 창업 부트캠프 프로그램'은 이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창업에 대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실제 제2회 K TOA 창업지원센터 DemoDay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역할이 되어보고, 창업의 성지인 테헤란로에서 Series-A/B 스타트업을 탐방하며 공유오피스인 드림플러스에 방문했다. 실제 창업가인 한효승 대표를 만나 '옐로우버스'의 창업 계기와 회사 소개를 들었고, 스타트업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들을 수 있었다. 또한, TAP angel partners 등 VC분들의 스피치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는 VC의 역할과 주요역량에 대해 알게 되었다. 롯데벤처스에 방문해서는 투자회사의 종류 및 역할과 앞으로의 기업투자 추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총 이틀간의 과정들을 통해 스타트업의 구체적인 시스템과 투자 지원체계에 대해서 경험하며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첫째날, IBK 창공에서 진행된 창업 부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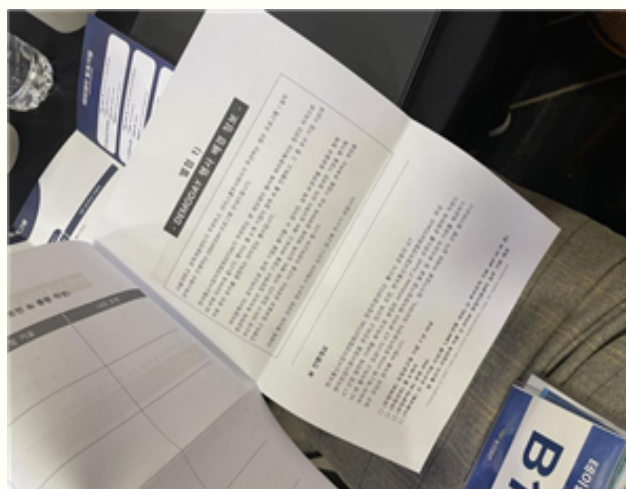
소감 및 유익했던 점

학부생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창업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그리고 참여한 창업 프로그램들 중 가장 인상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프로그램으로 '창업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꼽고 싶다.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 나는 프로그램 추천 대상에 모두 해당되었다.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계획중이었고, 스타트업에 취업을 희망했으며, 이미 창업을 했으나 현실의 벽에 부딪힌적이 있었다. 창업에 늘 관심과 고민이 많았지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곳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창업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지 그려볼 수 있게 되었고, VC/벤처기업가들과 네트워크를 쌓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줄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얻게 되었다.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을 만나 서로 이야기와 고민들을 나누며 많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만의 연구분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각자의 다양한 연구분야들이 만나 앞으로의 창업활동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데모데이였다. 셀렉트스타, 인터마인즈, 로보아르테, 헥사휴먼케어, 오이스터에이블, 커널로그 등 최신티렌드인 AI, 로봇, IoT 기술과 관련된 회사들의 실제 스피치 발표를 들 수 있었다. 이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기회였을뿐더러 실제 스타트업 회사들의 아이템, 스피치 방법, 열정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심사위원 역할이 되어 실제 데모데이에서 우승할 기업을 예측하며 더욱 몰입도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도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와 아자스쿨에도 감사함을 느낀 시간이었다.



[실제 데모데이 현장 수상식 모습 (좌)]
[데모데이 행사 참여시 예비 심사역 평가지 (우)]

구체적 성과 및 실적

막연하게 스타트업의 운영과 취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를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 현장에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실제 테헤란로와 공유오피스를 탐방하며 스타트업의 근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현업자들과 투자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아자스쿨, 스타시크릿코리아, 텐원더스 인베스트먼트, 탭엔젤파트너스 등의 실제 회사 대표 및 실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팀별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회사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운 점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했던 행동 등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 수 있었다. 새로운 직무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대학원에서의 연구에도 더욱 열정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 내가 하고있는 연구 분야가 창업 아이템이 되거나 근거 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들과 직무에 대해 찾아보면서 스타트업 취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와 학업에서도 하나라도 더 배우려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관련된 분야의 전망 전망과 미래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며 선구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참여해보고 싶다.



[스타트업 대표 및 실무자와의 질의응답 (좌)]
[탭엔젤파트너스 VC투자자 발표 및 질의응답 (우)]



[공유오피스 드림플러스 내부 전경 (좌)]
[롯데벤처스 엑셀러레이터 역할 및 투자동향 발표 (우)]

질 향상을 위한 제안점

기존 프로그램은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고 오피스를 방문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자 도움이 되었던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심화과정을 함께 진행하여 실제로 창업을 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스타트업 풀과 시스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기회였고, 창업을 아직 준비중인 학생들이 많았다. 따라서 심화과정 프로그램에서 직접 창업해볼 수 있음을 안내하고, 기존 프로그램중에도 창업 아이템을 미리 생각해 볼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는 학생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심화프로그램에서는 아이템의 타겟층 설정, SWOT분석, 경쟁사 분석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모의 DemoDay를 개최하며 기존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IR 스피치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익할 것 같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기존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들을 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스타트업에 더욱 한발짝 다가가 바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우주상



2022년 가을학기 iSNUC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황OO

영어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영포자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와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한 순간에 생긴 취미는 아니었고 어릴적부터 세계 각 지역을 대륙권 별로 소개하는 책을 즐겨보면서 막연히 그 지역에 대해 상상하거나 언젠가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사람들은 여행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나를 보고는 영어가 능통한줄 알곤 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외국어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여행지의 언어에 상관없이 선택했던 것이다. 나에게 영어는, 수능 외국어 영역 마지막 문항을 풀던 순간 더 이상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들게했고 특히 듣기문제를 풀 때면 듣고 있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의 오답률이 나오는 수준이었다.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과 말을 거의 섞지 않아도 될 만큼 여행준비를 철저히 해 가는 것이 영어와 친하지 않은 나만의 여행준비 방식이었다. 하지만 막상 해외에 가보니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생겨서 영어회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 숙소에서 조식을 먹으며 옆 테이블 여행객과 자연스럽게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다. 그렇게 해외여행을 하다보니 뒤늦게 영어회화 공부를 해볼까 생각이 들었고 영어회화책도 보고, 부담스럽지 않은 EBS 강의를 듣거나 언어교환 어플을 통해 외국인 친구도 사귀어 보았지만 회화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iSNUCE? 신청해볼까...

그러던 중 사범대학에서 운영하는 iSNUCE 프로그램의 가을학기 멤버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다. 언어 교환의 기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에서 온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외의 교육체계나 학교 문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관심이 생겼다. 그러나 낮을 많이 가리는 편인 나는 대화가 쉽게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의 주기적인 만남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가 걱정이 들었다. 한 학기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신청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했다. 그렇게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선호하는 언어나 성별, 희망하는 그룹의 인원수를 선택할 수 있어서 신청자의 대인관계 성향이 고려되어 팀이 구성될 수 있다. 학교에서 6년 배운 영어나 6개월 배운 일본어나 회화 실력은 고만고만 한 것 같아서 어떤 언어를 주력언어로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영어가 매치되기 쉬울 것 같아 1순위로 희망하였고 일본어를 2순위로 선택하였다. 구성원은 1대1 구성보다는 여러명이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이 대화 소재가 다양할 것 같아서 동성의 다수구성원을 희망한다고 신청하였다.

Nice to meet you!

얼마 지나지 않아 구성원을 알리는 메일이 왔고 그를 통해 우리 팀은 한국인 2명, 말레이시아와 팔레스타인 국적의 학생 각 1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4명이다보니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가까스로 평일 늦은 저녁에 시간을 맞춰 교내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나를 제외한 3명의 학생들은 모두 체육교육과 소속의 석사과정생들이었고 나와 10살 정도 차이 나는 또래들이었다. 제자뻔인 친구들이, 그것도 외국인이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주는 모습이 생경하기도 했고 귀엽기도 했다.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첫 날은 외국에서 온 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네 명이지만 모두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학원에 입학했고, 각자 연구주제와 기대하는 차후 행보를 들어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내가 생각했던 사범대생의 장래는 교사 및 관련 교육기관 관련 종사자 외에는 떠올리질 못했는데 친구들을 보면서 같은 사범대생으로서 학교라는 공간 외에도 교육관련 다양한 공간에서 종사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것에서 직업에 대한 시야가 훨씬 넓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지?

우리는 매주 1회씩 한 시간 정도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만날 때마다 대화의 주제는 다양했다. 우선 프로그램의 원칙은 각각의 언어로 30분씩 대화를 진행하며 언어를 익히는 것이었지만 나를 포함한 다른 한국인 친구도 영어가 능통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 친구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입장이었다. 다행히도 말레이시아 친구가 영어와 한국어 모두 능통하여 우리의 서툰 영어나 한국어 대화를 팔레스타인 친구에게 통역해주어서 대화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 '최근에 가장 OO했던 이야기'형식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며 공감을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나갔다. 두 명의 무슬림과 개신교, 그리고 과거 카톨릭이었던 나까지 다양한 종교를 믿다 보니 서로의 종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다.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앙심이 깊은 친구들이었고 특히 같은 무슬림이라도 말레이시아 친구는 히잡을 둘렀고 팔레스타인 친구는 쓰지 않았다. 무슬림의 발원지와 가까운 지역 출신인 친구보다 더욱 먼 곳의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전파된 종교를 더욱 독실히 믿는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 모두 자신이 믿는 신에게 항상 기도를 하고, 그 속에서 나는 이러한 작물을 제배하여 식탁에 올릴 수 있게 한 많은 이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며 식사를 시작했다.

모두 사범대 학생으로서 관심 가질만한 주제인 각국의 학교생활이나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도 흥미로웠다. 이렇게 특정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만 한 것은 아니고 어떤 날은 영어 단어 게임을 하거나 점심 때 만나 학생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우리가 모이는 날에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선물과 촛불을 켜 생일케이크를 주며 생일축하 노래도 불러주기도 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비는데 팔레스타인 친구는 케이크를 먹기 전 케이크를 자르면서 소원을 비는 것에서 문화의 차이를 느꼈다.

다들 운동신경이 좋고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니 체육관에서 함께 배드민턴을 치기도 했는데 왠지 운동선수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척척 해낼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어서였을까. 난생 처음 배드민턴 라켓을 잡아본 축구선수 출신의 친구가 어색하게 라켓을 휘두르는 것이 의외였다. 발로 하는 스포츠는 자신있는데 손으로 하는 스포츠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 축제 기간에 만난 모임에서는 함께 부스도 방문해보고 저녁에는 버들골에서 열리는 공연도 함께 보러가기도 했다. 나도 한 때는 아이돌 멤버와 활동곡, 퍼포먼스의 포인트 동작 정도는 빠삭하게 알 정도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옆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말레이시아 친구에게 누구 노래인지,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나를 발견했다. 특히 이 친구는 한류를 통해 한국에 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한국어에 친숙한 상황이었고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어느 정도 그 언어에 친숙해진 상태에서 1년 정도 현지에서 생활하면 이 정도로 언어가 늘 수 있는 걸까? 사실 한국어는 일상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언어인데 매체를 통해서도 단시간에 언어습득이 된다는 점이 신기했다. 물론 이 친구는 영어를 통해서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방법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학교에서는 일반 교과도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 시간이 아니라도 영어를 접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했다. 언어교환 어플에서 사귀었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친구만 보더라도 영어를 일상회화에 사용하는 것에서 무리가 없었던걸 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학교 수업을 통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우리보다 확실히 많아 영어 사용에 친숙한가보다. 사실 내 또래 사람들은 영어를 꾸준히 하지 않았거나 언어 감각이 좋지 않은 이상 왕년에 영어 점수가 잘 나왔거나 그 외 영어관련 시험점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회화실력이 그 점수에 비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친구는 학창시절 한국드라마로부터 한국어를 접했다고 현지에서 1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확실히 언어는 많이 노출되고 많이 사용해야 늘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iSNUCE 활동을 하며 찍었던 사진들]

또 인상적이었던 대화 주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였다. 어릴적 성당에서 교리 공부를 하거나 세계2차대전 주제의 영화를 통해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유대인'을 많이 들어봐서 이들에 관심이 많았고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지역임을 알고는 있었다. 분쟁의 원인이나 현재 상황을 팔레스타인을 자국으로 둔 친구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분쟁의 역사를 연도를 언급하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얼마나 자세하게 외국인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지 반성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인상깊었던 점은 팔레스타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아닌 아랍어가 공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 사용되어 온 언어보다 종교로 전파된 언어가 주요 언어가 되는 것을 보니 종교의 힘이 생각보다 종교 이외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왜 그렇게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가을학기에 만나 더 추워지기 전에 날씨 좋은 어느 날 서울 나들이도 가보려고 했지만 다들 대학원 생활에 바쁘고 네 명이 함께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학교 밖으로 함께 놀러가지 못한 것이 내심 아쉬웠다. 우리의 iSNUCE 프로그램은 한 학기로 끝났지만 17주의 교육과정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팔레스타인 친구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종종 식사도 함께 하고 여행도 가보기로 했다.

iSNUCE, 언어교환 그 이상

iSNUCE는 단지 언어교환을 목적으로 신청한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을 그들이 선호사항에 맞게 매칭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서, 또는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iSNUCE 프로그램의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신청자에 한해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도서관 투어를 통해 내부 시설 이용방법에 대해 익히고 추석, 한글날, 빼빼로데이 기념일에 맞는 행사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경복궁 투어, 송년의 밤, 무비데이 등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해 주었다. 나는 외국에서 학교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머나먼 이국땅에서 홀로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iSNUCE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해주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학생들과의 소통망도 형성되면서 서울 대학교에서의 즐거운 한국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는 해외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외 대학생활이나 현지 생활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iSNUCE를 통해...

우선 사범대 학생으로서는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친구들의 학교문화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은 내가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다양한 학교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 내가 느끼는 개인적인 문제점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 같다. 특히 다문화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현재 내가 근무하는 지역은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실내 문제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외국에서 온 학생, 부모님이 외국인인 학생, 한국말이 서툰 학생 등은 언어문제 뿐만 아니라 교실문화 적응에서도 문제점을 겪게 될 것인데 애초에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외국의 교실문화의 사례에서 학급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자신감과 외국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느껴지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내가 문법에 맞지 않게 말해도 핵심 단어만 사용하면 모국어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더군다나 파파고와 같은 어플을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생각나지 않은 단어를 검색해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문장이 번역되기 때문에 편리했다. 또한 친구들이 내가 잘못 발음하는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알려주기도 했고 말하는 문장을 좀 더 매끄럽게 수정해주거나 표현방식을 다르게 다듬어주기도 하여서 회화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나와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들을 마주하고 한국어만 사용해왔던 나는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을 마주하면 낯설어 하고 부가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해야하는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자극과 반응처럼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처음에는 이국적인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낯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곳의 풍경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나와 생김새가 다른 친구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외국인과 외국어에 대한 낯설음이 없어져갔다.

만약 나처럼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을 만나고 싶다, 외국어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iSNUCE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모이는 조건이 있지만 만남의 횟수가 한 학기의 주수보다 적기 때문에 바쁜 주는 건너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줌(zoom)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유효하다. 그래서 12학점을 꽉 채워들은 지난 2학기에도 iSNUCE 프로그램이 부담스럽지 않았으며 언어를 공부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야기를 나눈다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언어공부에 대한 압박감도 들지 않았다. 사실 나는 내향적인 성격에 낯가림이 많은 편이지만 나보다 활동적이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사범대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범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범대 학생들이 참가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타 대학에도 한국 학생과의 교류프로그램이 형성되거나 iSNUCE에서 타대학 외국인 학생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더 많은 외국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 적응과 소통망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한국 학생들에게는 언어의 선택폭이 더 넓어지고 더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석사과정으로 남은 두 학기도 iSNUCE 프로그램을 통해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즐겁게 보내고 싶다.

메타버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알게된 기회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한OO

참여 프로그램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한OO OOO SIZHU(2022-21309)입니다. 저는 2023년 1월 27일에 진행된 '대학원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실습형 메타버스 입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이 프로그램 덕분에 방학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자 참여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고, 제게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최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만큼 평소 저도 메타버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은 오전 이론 학습과 오후 실습 체험으로 나뉘는데, 오전에 주로 이론 강의 위주로 메타버스의 개념 및 특징,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 탐구, 메타버스 서비스의 종류 및 플랫폼 별 특징, 메타버스 플랫폼 세부 이해 등의 내용을 공부합니다. 오후에는 제페토를 이용한 메타버스 맵 제작 실습, 결과물 공유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구조를 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소감 및 성과

저는 이론 학습 부분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과 활용 분야를 알게 되었고, 저는 신용현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 덕분에 메타버스의 입문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메타버스 연구의 대두이신 김상균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메타버스 기술 응용의 예시를 알 수 있었고, 구체적인 영상자료까지 보여주심으로써 보다 더 풍부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기술이 가상현실 게임뿐만 아니라 무대 효과, 매장 운영, 게임, 정부 정부 처리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난 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았고,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머지않은 날에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소비자 및 일반 시민의 요구 및 편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상 중, 저에게는 특히 메타버스 자동차 공장에 대한 영상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설계할 때 노동자의 작업 구역이 지나치게 촘촘하게 짜여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는지 메타버스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확인을 한다던지, 혹은 공장 전체의 벽 페인트의 색을 바꿔 보는 등의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즉,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까지 모두 대폭 절감하면서도 공장을 설계할 때에 생길 문제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수님이 준비하신 영상과 해설을 통해 메타버스 생산 작업장(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공장 설계와 생산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하면서도, 동시에 비용 절감과 높은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전 시간에는 메타버스의 이론에 대한 기본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실습 시간에는 제페토를 이용한 메타버스 맵 제작 실습, 결과물 전시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습단계에서는 네이버 Z 공식 크리에이터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저만의 메타버스 세계를 건설해 보았는데, 그것은 저에게 있어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를 건설할 때 단순히 외적인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전문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설계, 그리고 이를 이용한 점핑 게임까지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을 외우고 제한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지 못합니다. 그 지식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만 하면, 스스로 해결책을 설계하고 직접 탐색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들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은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후 실습 과정을 통해 나만의 메타버스 세계를 세우며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페토를 이용한 메타버스 맵 결과물]

참여 프로그램에서 배운 지식에 대한 향후 응용 방향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재택근무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에 비해, 원격근무는 여전히 실시간 상호 작용의 한계와 커뮤니케이션의 낮은 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강좌에 참가하여 메타우주 입문 지식을 알게 되면서부터, 메타우주 기술이 앞서 말한 원격 사무가 지닌 몇 가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또한 메타우주를 사용하여 가상 사무실을 대면 상호 작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참가자들은 가상 이미지로 나타나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함으로써 회의의 참여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적지 않은 학술강좌, 졸업식 등의 행사가 메타버스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통해 학습을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메타우주에 진입하면서 교육은 더 이상 시공간과 실제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있고, 교육 자원의 부족과 불균형이 개선되고 다양한 창의적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교육의 질과 양은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학교육 공개수업도 메타버스의 힘

을 빌려 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강의를 통해 더 많은 산업과 메타버스의 융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비자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강의가 끝난 뒤 조사를 한 결과 메타우주산업의 소비자만족도, 체험감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강좌가 저에게 탐구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 프로그램과 관련된 에피소드

우선은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담당 교사님들이 매우 친절하십니다. 참가자들에게 하루 전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이런 멋지고 알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전 과정에 참여하면 수료증 또한 받을 수 있는데, 이 점이 학우들의 참여 동기와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선생님들께서 간식과 음료도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쯤 선생님께서 저에게 간식을 더 많이 챙겨 주신 덕에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경력개발센터 선생님이 학교 식당 식권을 배부해 주셔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저도 새로운 학우님들을 알게 되었고 외롭지 않게 같이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여 프로그램을 다른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

현실 생활에 존재하는 문제는 한 과목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여러 학문 속에 숨어 있는 유용한 지식을 하나로 연결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학과의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생에게는 다양한 지식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융합 소양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싶은 학우님께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학교 인근에 사는 학우님들은 다니기에 더 편리할 것입니다. 저는 학우님들이 방학기간 동안 이러한 좋은 무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여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건의하거나 제안할 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여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학생들의 본인들의 자유의사로 선택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건의 사항으로, 프로그램 마무리 할 때 최소 1~2 명 학생들이 오늘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과연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혹은 프로그램에서 다룬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실습형 메타버스 입문 교육 프로그램’참여 인증사진]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박OO

2022년 11월 저는 “[안내] 대학원생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교육 프로그램” 메일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이 프로그램은 인프런(inflearn)이라는 유명한 온라인 사이트와 제휴하여,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관련 강의 중 본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인프런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분석 강의를 수강한 바 있던 저는, 해당 사이트에 양질의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어진 금액(30만 원)을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강좌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참여 신청을 하였고, 다행히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정규 교과과목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원하는 과목을 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주어진 기간 내에서 제가 자유롭게 일정을 짜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나 개발 · 프로그래밍 분야만 하더라도 분야별로 수백 개 이상의 강의를 있어, 선발이 됐을 때 강의를 고르느라고 바로 강의를 듣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특성상 제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 제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있는 점 역시 큰 장점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의 양이 불규칙하고 매일 정해진 시각에 수강할 수 없었던 저로서는 가장 자율적인 형태로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강의는 제가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프론트엔드(front-end) 강좌들이었습니다. 연구성과물이나 전달할 정보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전달할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들의 사용자 경험(UX)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랙티브 웹 개발 강좌들을 수강하였는데, 마우스를 창의 원하는 곳에 가져다 대었을 때 객체를 변화시킨다든가, 파워포인트의 애니메이션 효과와 같은 것을 웹에서 직접 구현해볼 수 있었습니다. 각 강의에서는 사용했던 소스 코드나 부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도 해당 코드들을 적절히 수정하여 저만의 저작물을 만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강좌들을 통해 다양한 브라우저와 기기에 최적화된 코딩은 물론, 하나의 화면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배치(layout)와 색감, 3D 코딩 기술 등을 익히고,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좌들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절한 길이의 기간, 온전히 저가 100% 발휘할 수 있는 강좌 선택권, 그 선택을 실제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저를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골고루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 다른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이트에서 다른 강좌들을 찾아보면서 관심 있는 강좌들을 찾아보기도 하였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소식 역시 더 주의 깊게 찾아보고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만족했던 프로그램이라 더 보탬 점을 찾기가 어렵지만, 제 주위에 서는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지 않았는데, 프로그램 시작 전 충분한 홍보와 함께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있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강생들도 더 많은 완강과 지식 습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유명한 플랫폼이라 제공해주는 콘텐츠는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강의 특성상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해서 조금 더 넉넉한 기간이 있었다면, 다른 강의들도 많이 체험해보고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학우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저는 진도율 확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리해서 세 개의 긴 강좌를 신청했고, 그중에 하나의 강좌에 대해 수료증을 받고 나머지 두 강좌는 아직 수강 중입니다. 인프런 사이트의 진도율 체크 기능이라든가 학교의 안내 등을 통해서 내가 너무 천천히 수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본다면, 자율성이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많은 강좌는 단순히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이후에도 실습을 해보거나 나만의 작업물을 만드는 체화의 과정이 꼭 필요하므로 좋은 강의를 여러 개 무리해서 듣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간을 배분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경력개발센터와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장려상



창업,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이OO

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022-2 기업탐방프로그램(LG전자) – 이과계열만 신청 가능”

(일시 및 장소) 2022. 11. 11. (금) 12:00 ~ 18:00, LG사이언스파크(마곡동)

(세부일정) 하기 <표> 참조

시간	내용	장소
12:00 ~ 13:00	참석인원 점검 및 출발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13:00 ~ 15:00	회사소개 및 갤러리투어	LG전자
15:00 ~ 16:00	졸업생 선배님과의 대화	LG전자
16:00 ~ 17:00	마무리(우수참여 시상, 설문지 작성 등)	LG전자
17:00 ~ 18:00	이동 및 도착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 특징) 서울대학교 이공계열 전공 학생들에 한하여 졸업 후 진로를 설계하는데 보다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떨지 사전에 직접적인 경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활동내용) LG전자 인사담당자 김지윤 대리님과 서울대학교 졸업생 현직 실무자 이동기 선배님과의 만남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LG전자의 전반적인 사업부문 및 기술분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연구소 및 갤러리 탐방이 함께 이루어져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서울대학교 동기 및 선배들과의 만남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기억에 오래 남을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발전되어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소감

분명 교과 프로그램에서는 절대적으로 배울 수 없는 사각지대와 같은 부문이 존재하며, 특히 현장적, 실무적, 경험적 역량을 축적하는데 서울대학교 내 여러 부서 및 학과에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하시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개발센터, 국제협력본부, 기초교육원, 에너지산업 혁신공유대학사업단 등 다양한 시행처의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들(예 : 기업탐방프로그램, 유학생 문화행사, 워크숍, 세미나, 강좌 등)을 참여하며, 항상 저희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건의하거나 제안할 점

그 중에서도 이번 대학원생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수기에 가장 기억에 남았고 유익하였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으로 본 “2022년도 2학기 기업탐방프로그램(LG전자)”을 선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여타 비교과 프로그램들로부터는 결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유의 차별화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장엔 특정한 권한이 없이는 방문조차 쉽지 않고, 대부분 그러한 경험을 개별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데, 이를 경력개발센터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기업에 계신 책임자 및 관계자분들과 일일이 협조를 구하시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고, 일정을 조율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여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온전히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첨언하자면, 예를 들어 문화행사 혹은 워크샵, 세미나, 강좌 등의 경우 이를 어느정도 수준에서 대체할 만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반면, 특정 기업을 방문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분들과 만나 뵙고, 더불어 다양한 학우 및 선후배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여타 비교과 프로그램들과 달리 그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다른 학생분들께도 더욱 많은 소중한 기회들이 닿기를 희망하며, 계속적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에 대하여 더욱 많은 연계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자랑스런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며 보다 가까이 응원할 수 있는 선순환적 문화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구체적 성과 및 실적

(지식 및 기술 습득) 목적의식 없이 막연하게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채우기보다도 실제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데 그러한 관점에서 기업탐방을 통해 사전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및 학습 동기 향상) 연구와 학습 동기 향상 또한 마찬가지로, 향후 나의 미래를 그려나감에 있어 스스로 더욱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를 받아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의 인재로 성장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도움) 취업 및 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본 기업탐방프로그램을 통하여 두 눈으로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경험해봄으로써 향후 미래에 어떠한 직업을 가질지에 대한 선택지를 가시화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교류 활성화) LG전자 인사팀 김지운 대리님, LG전자 AI 솔루션 개발팀 이동기 선배님,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18학번 김서연 선배님 외 여러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뵙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건의하거나 제안할 점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과계열만 신청 가능”이라는 지원자격에 한정하였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는 세상에서 지식과 기술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므로,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 발굴 및 양성 차원에서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생들이 학제간 제한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향후 개선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학생활동, 지속가능성을 찾아 나선 우리 공동의 여정

국제농업기술대학 국제농업기술학과 이00

때는 바야흐로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21세기이다. 인류는 그 어느 때 보다 예측 불가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촌은 입을 모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외치고 있다. 즉,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늦게나마 실천하고 있는 셈인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시기에 들어서는 개인, 국가, 지역, 글로벌 단위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책무와 이행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부 주관 연구소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ISD)는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온실가스·에너지 종합관리센터, 탄소중립센터, 적정기술센터, 지속가능발전정책센터, 지속가능발전이론센터로 총 6개의 세부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 교육, 이론, 측정, 기술 등 캠퍼스 내에서 배출되는 탄소와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고, 환경친화적인 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SDGs의 중심축인 환경,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지역사회, 국가, 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중 나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총 2개 학기 동안 온실가스·에너지종합관리센터에서 모집한 「친환경 학생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학내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였다. 해당 지원사업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자연환경 보존, 폐기물 배출 저감, 친환경 거버넌스 구축 등 친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여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소 내부 선발을 통해 지원할 팀을 선정한다. 애초에 선정 기준이 그룹 단위였기에, 나는 국제농업기술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석박사과정 동료들에게 함께 친환경 활동을 제안했다.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의 국제농업기술학과에는 다섯 개의 세부 전공이 있는데, 나의 전공인 국제농업개발협력전공은 그 어느 전공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화두와 열의를 가진 학우들이 많았다. 또한, 대학원 과정에서 '사회적농업과 개발협력(지성태 교수)' 강의가 때마침 열리는 학기였던지라,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함께 그룹을 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집 공고를 안내하고 4인을 모집하여 '애그린(Green)'이라는 그룹을 결성했다.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이 위치한 곳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로 관악캠퍼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면 활동이나 학내 캠페인과 같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친환경학생활동은 지원금 지원 이후 지원금 사용에 있어 공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평창캠퍼스에서 활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비대면 OT 등과 같이 일정 부분 편의를 주었다. 그렇기에 대학원생으로 친환경 학생활동을 참여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친환경 학생활동은 현재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는 이론 밖 실천의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팀 '애그린(愛Green)'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평창캠퍼스 내 친환경 학생 활동을 시작하였다. 국제농업개발협력을 전공하고 있지만, 협력은 결국 현장에서 농업을 재배하면서 얻어가는 것으로 농업과 개발협력에 관한 이론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해당 활동을 통해서 평창캠퍼스 내 그린텃밭 조성, 농사 상생 프로젝트, 친환경영화제, 지속가능성 학생집담회, 지구를 위한 낭독회, 정기회의 등을 하였다.

애그린의 활동은 크게 '실천과 나눔'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평창캠퍼스 내 시범재배 부지를 확보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그린텃밭'을 조성하였다. 약 300평 정도의 부지에 옥수수, 카사바, 배추, 고구마, 콩 등 그룹원들이 각자 재배하고 싶은 작물을 심었다. 이 과정에서 경운과 무경운을 실험하여 옥수수가 어느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보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생분해 멀칭, 커피 찌꺼기 퇴비 등 작은 부분에서 하나씩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개발협력의 화두에서도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이 주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 전공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지 않고 개발협력 프로젝트 현장에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었다. 따라서 애그린은 팀원들과 함께 친환경 시범재배포인 '그린텃밭'을 가꿔 나가면서 재배와 수학의 보람은 물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작지만 알찬 실천을 이어 나갔다.

한편, 나눔의 영역은 결국 '국제농업개발협력'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곱씹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는 또한, 서울대학교의 지속가능성 달성이 학교, 지역사회, 국가 단위로 나아가는 맥락과도 같다. 해당 활동을 하면서 대학원 내 개설된 '사회적농업과 개발협력' 강의와 연계하여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인 '농사 상생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였다. 2022학년도 1학기에 해당 과목이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의 사회공헌형 교과목에 선정되면서 해당과 친환경 학생활동을 연계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농사와 서울대학교를 합친 '농사 상생 프로젝트'로 평창캠퍼스가 위치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강원도 평창군 인근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의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한 것이다. '농사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총 4곳의 농가 방문을 하였고, 각 농가는 작물도 재배 방식도 다양했다. 와사비, 딸기, 퍼머컬쳐, 브로콜리 농가를 방문하면서 평창캠퍼스 안에서만 '농업'과 '개발협력'에 몰두했던 과거의 생활이 꽤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결국 평창캠퍼스의 지속적인 공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지역 농가의 번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껏 책과 논문을 통해서만 보던 농업의 실재를 친환경 학생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시간을 농업에 쏟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애그린은 농업 외의 부수적인 활동도 병행하였다. '친환경영화제'와 '지속가능성학생집담회'를 통해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였다. '친환경영화제'를 통해 친환경 농업과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2학년도 2학기에는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 방문연구원으로 온 가나, 중국 출신의 연구원들과 함께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가 공동으로 마주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본래 '국제농업개발협력전공'에서 결성한 그룹답게 '지속가능성학생집담회: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개최하여 굿네이버스 말라위 노성채PM을 초청하여 온라인 강연을 개최하였다. 강연주제는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말라위에서 기후변화 대응 농업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개발도상국의 현장에서는 농업이 마주한 문제를 어떻게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돌이켜보니 1년간 친환경 학생활동의 지원을 받아 두 학기를 보냈다. 해당 활동을 통해서 이론에 머물렀던 시각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적용해볼 수 있었고, 국제협력이라는 전공에 갇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비단 이 활동이 친환경 농업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친환경을 둘러싼 환경, 보건, 교육, 농업 등 여러 사회의 문제를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이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활동은 주로 학부 과정 학생들이 다수로 참여하고 있고, 대학원생의 그룹은 우리 그룹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활동이 대학원생 차원에서 적극 권장되어 이론에 고립된 대학원생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응용력과 연구실 밖의 창의력의 원천을 얻는 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해당 활동은 현재 지원하는 접근 경로가 서울대학교 포털 내 공지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학내 전체 공지 메일이나,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내 공지사항 게시 등을 통해 해당 활동을 알리고 접근하는 방식이 더욱 활발해지면 좋겠다.

많은 대학원생이 우려하는 것은 학업의 과정이 길어질수록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여 이론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 학생활동은 친환경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이든지 지원하며, 각 팀의 특성과 활동 방향에 따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친환경 학생활동은 친환경과 관련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막연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과거와 달리, 친환경 학생활동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로 농사를 짓고, 농가를 돕고, 친환경 토론을 하면서 '실천과 나눔'의 미덕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브룬틀란 위원회에 의해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보고서에 의해 처음 등장했다. 우리 공동의 미래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공동의 실천이 되었다. 친환경 학생활동을 통해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며, 이론과 실천의 경계를 과감하게 넘나드는 대학원생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대학원 과정에서 학문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배우고 익히는 보람을 느껴보는 것도 제법 멋진 일이다. 함께 학업을 동행하는 동학들과 함께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여정에 동참해보길 바란다.

더닝 크루거 효과 : 우매함의 봉우리를 벗어나며

인문대학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김00

2021년 봄,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들뜬 기분도 잠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첫 학기는 모두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었다. 교수님과 학우들은 실제로 만나지 못했으며, 학교 교정도 걸어보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일상은 거의 1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학위 논문은 졸업의 필요조건이라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수업을 듣다 보면 '풍부한 전공 지식이 습득되고 자연스럽게 논문을 쓸 수 있게 되나 보다'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2022년이 되고 나서, 학과 조교로부터 지도교수님을 정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도교수님을 정하려면 우선 논문 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전공에 대한 나의 이해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만의 연구 주제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기대 효과를 직접 글로 써보려니 나의 무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주제로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도 이미 관련 선행 연구가 존재하였다.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지도 교수님께 우선 메일을 보냈다.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이며, 제가 가진 문제의식과 연구로 인한 효과 등을 말씀드렸다. 이것 역시 모호한 연구계획서였으나, 교수님께서서는 흔쾌히 나를 지도학생으로 받아주셨다.

지도교수님만 정해지면, 교수님과 함께 토의하며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논문의 목차를 구성할 수 있을 줄 알았다. 1년 전, 나는 논문 작성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나에게 더닝 크루거 효과를 적용해볼 수 있다. 이는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역량이 부족하여 그 판단의 오류를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편향된 인지 체계로 인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를 하고, 객관적인 실력에 비해 자신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나 역시도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는 지난 1년간 전공과목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한 장씩 쓰다 보면 금방 논문 한 편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논문을 쓰려고 보면 연구 주제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할지, 연구 방법은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할지, 선행 연구들은 어떤 식으로 인용해야 할지, 논문 목차에 따른 장과 절은 어떻게 나뉘어야 할지 등 고민을 하면 할수록 나의 무지와 한계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우매함의 봉우리 맨 꼭대기에 있었던 것이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절박함을 느끼며 학내에서 제공되는 논문 관련 수업이나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다. 논문 글쓰기에 대한 서적들을 몇 권씩 읽어보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기는 했으나 기록학과 관련된 여러 학회에서 인용되는 참고문헌의 인용 방식이나 기존 학위를 받으신 선배님들과의 졸업 논문 인용 방식 등이 전부 상이한데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와 같은 아주 사소한 질문들까지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유명 인사들이 논문 표절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뉴스를 접하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표절 시비에 휘말리지는 않을까에 대한 걱정까지 하게 되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인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때, 각주를 달아야 하는 최소 단위가 문장인지 도는 문단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상식조차 부족한 나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지도교수님께 정말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메일도 드리면서 나의 고민들을 해결해나갔다. 하지만 나의 연구 주제가 과연 석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았다.

22년 9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 “대학원생이 꼭 들어야하는 논문 작성법 및 논문 통계 특강”을 소개하는 메일을 받았다. 학위 및 졸업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던 대학원생에게 정말 솔깃한 제목이기에, 나는 해당 시간대에 별다른 일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참여 신청을 하였다. 이 특강은 웨비나 방식으로 6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였으며 이 중 4명 정도 신청을 받아 화상에 등장하며, 강의자와 직접 소통을 하는 방식이었다. 1일차에는 논문작성법 이해와 전략, 논문의 장별 특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사회과학분야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통계분석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다. 2일차에는 양적 연구방법론별 논문을 분석하고 학술자료들을 검색하는 방법과 인용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강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논문 작성자 스스로도 사소하다고 치부할 수 있는 궁금증을 강의 주제로 직접 언급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지도교수님께 논문 지도를 부탁드릴 때 연구 주제를 어디까지 발전시킨 글을 드려야 할지에 대한 답이나, 관련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 중 논문 주제와 연관되어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는 어떻게 찾는지와 같은 것이다. 나 또한 궁금한 것이었으나, 바쁘신 지도교수님 또는 선배님들께 하나하나 여쭙보기 민망하여 나 혼자 끙끙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궁금증은 논문을 처음 작성하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른다. 또한 논문의 각 장을 작성할 때 당연히 서론부터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의 고정관념 역시 바뀌었다. 논문에 대한 목차, 즉 뼈대가 완성이 되고 나면, 우선 본론에 주요 주제들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들을 엮어나가면서 최종 생각이 정리되었을 때 서론을 쓰는 것이 논문의 모든 주제를 포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해당 특강에서 배운 실용적인 기술들과 더불어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절망의 계곡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의 글쓰기 능력, 나의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해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는 절망감에 좌절하던 나에게 논문 작성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결국 해당 특강을 들으면서 논문의 근원적인 작성방법은 ‘내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으며, 어떤 것을 알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이 무작정 인용 빈도가 높은 선행 연구의 참고문헌들을 읽고만 있었기 때문에 논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의식을 내 스스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나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기록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것을 정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 편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타래의 시작점, 즉 실마리를 잡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수월했다.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적재되는 데이터들을 어떤 기준과 맥락으로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나의 논문은 그 중에서도 하나의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몇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내 연구 결과로 데이터세트 기록물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연구 의의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의 끝자락에 결국 석사논문 심사를 통과하였고, 이제 학위 수여만을 앞두고 있다. 아마 이 특강을 통해 얻었던 논문의 실마리, 즉 문제의식의 발로가 가장 큰 성취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해당 특강을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도 있다. 우선 대상자 선정의 경우이다.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이 특강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강의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후기 입학자로 이제 막 첫 학기를 시작하며 교양 삼아 들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나와 같이 해당

학기에 논문 청구 심사를 앞두고 있는 대학원생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석사 학위 뿐만이 아니라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대학원생도 있기에 대상자를 명확하게 타겟팅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논문 심사를 앞두고있는 석·박사 심사청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소수의 참석인원 전원이 질문하고 참여할 수 있는 특강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논문을 어느정도 작성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작성하고 있는 논문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준다면 특강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연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강 중 다른 학생들에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메일이나 또는 특강 이후 1대1 면담의 형식으로라도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 실제 작성 중인 논문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나는 논문의 최종 탈고를 하며 지난 2년 간의 나의 대학원 생활을 회고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전공학문에 대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다는 뿌듯함이 나를 우매함의 봉우리 꼭대기에 올려두었다. 하지만 졸업 논문에 대한 부담감과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는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 현재는 깨달음의 비탈길 초입 부근에 머물러 있다. 학위 논문에 대한 부담감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내가 직접 참여했던 논문작성법에 대한 특강에서 경험한 것을 나누며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스스로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회복할 수 있었던 시간

의과대학 협동과정 종양생물학전공 김OO

참여 프로그램 소개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 1월 13일에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와 한국진로적성센터가 진행한 “대학원생 진로개발역량 향상 프로그램: 진로를 디자인하라” 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공별로 진행되는 날짜를 구분하여 보다 비슷한 계열의 학생들끼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로이해 역량특강”을 통해 개인별 성향 및 적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진로적성센터에서 개발한 옥타그노시스 진로적성검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유형을 통해 각 개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향기반 activity”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세션은 이름 그대로 앞서 파악한 자기 자신의 유형 및 성향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정부기관, 기업, 연구기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기후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 각자의 성향에 따라 부여받은 역할과 함께 배정된 팀원들과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는 것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 대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면 컨설팅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미리 수행한 옥타그노시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면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특징은 “옥타그노시스 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옥타그노시스 검사는 교육과학적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신이 ‘잘하는 것(성향, 역량, 적합직무)’과 ‘좋아하는 것(선호 성향, 선호전공 및 직업군)’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여느 다른 성격 유형 검사와 비슷하다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검사가 다양한 인간을 특정 유형으로만 규정짓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해당 검사를 진행하였고 본 프로그램에서는 저의 검사 결과지를 바탕으로 구성된 세션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소감

저는 본 프로그램을 참여한 것은 대학원 생활 동안 잘한 활동 중 하나로 정할 수 있으며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제가 공부하는 전공과 졸업한 이후의 진로 설정에 대한 실제적인 방향성 수립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했던대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진로 설정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에 노력을 더 해야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저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은 시간이었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진학한 현재 저의 대학원 생활은 많은 것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많이 잃어가는 시간 또한 많았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회복할 수 있었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구체적 성과 및 실적

본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이후의 구체적인 직무를 당장 설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고 어떻게 이후 진로를 준비하면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저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의 학위과정에서 오는 매너리즘과 스스로를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재 학위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저의 현 상황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성향기반 activity” 세션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졸업 후 속하게 되는 직장 및 다양한 공동체에서 수행하게 되는 실제적인 상황을 체험해본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활동이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여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건의하거나 제안할 점

참여했던 프로그램에서 크게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성향기반 activity”에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각자의 성향 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참여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다보니 수행한 활동이 어떤 의도로 진행된 것인지 모르고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참여한 기관에서 잘 설명해주시긴 하셨지만 갑자기 활동을 진행하고 명확히 이해하기 전에 제한시간이 존재해서 조금의 부담감과 불편함이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자 입장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이해도를 높이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도 습득할 수 있었던 매우 값지고 뜻깊은 경험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이OO

다양한 전자제품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된 이후, 가장 중요한 핵심 첨단 산업들에는 연산을 수행하는 전자기기들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전자기기의 수행 능력과 성능은 그 구성요소인 메모리, 로직, 센서 등의 반도체 소자들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과 신뢰성이 우수한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 반도체 산업은 국가경쟁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 공정, 평가, 재료개발, 설비개발 등 다양한 크고 작은 산업군이 모여져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목표는 결국 우수한 반도체 소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관련 직군에 대한 업무나 연구를 할 때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장비가 워낙 고가이며 공정 환경을 갖추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직접 실습하며 장비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는 반도체 8대 공정 중 핵심적인 6대 공정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반도체기본공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대 공정은 산화(oxidation), 금속(metallization), 사진(photolithography), CVD, 이온주입(ion implantation), 건식식각(dry etching)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일에 걸쳐 각 실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 공정 실험 별로 교내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조교님들의 강의와 실습 체험이 이루어지며 퀴즈 등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교내 학생은 물론 타교 학생과 일반인들에게까지 쉽게 접근 가능한 반도체 공정 교육과 실습은 아마 반도체공동연구소의 반도체기본공정교육이 유일할 것입니다.

저는 2021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제298회 반도체기본공정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각 실험 별로 먼저 이론 강의를 듣게 되는데, 이론 강의 시에는 각 공정의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산화 실습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진행하고, 어떤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해당 공정을 예측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후 해당 공정을 제어하기 위한 변수들에 대해서도 과학 및 공학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단순히 해당 공정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공정들에 대한 설명, 반도체 소자 제작 전체 과정 중 해당 공정이 언제 진행되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후속 공정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어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반도체 소자 제작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공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정 뿐만 아니라 각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 공정에서는 반도체에서 이용되는 금속 배선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소자의 배선 층별로 어떤 금속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해할 수

있으며, 각 재료별로 공정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각 공정 별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등 매우 풍부한 다각화된 측면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Fab에 들어가서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습을 통해 교육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반도체 공정을 전문으로 다루는 강의에서 다루는 수준 만큼 전문적이기도 하며, 핵심 위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서 크게 지엽적이지 않아 단기 교육으로 공정을 핵심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습을 통해 반도체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직접 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인상 깊었으며, 이론 강의로만 교육이 끝났다면 머릿속에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실제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감을 잘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습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론 내용에서 배웠던 공정 원리와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이론 강의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장비 조작 방법, 조작 시 주의사항, 장비 관리 방법, 시료 준비 방법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도 습득할 수 있어 매우 값지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반도체기본공정교육을 이수하면서 반도체 공정에 대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지울 수 있었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았으며 이후 반도체공동연구소에 입소과정을 거쳐 입소생이 되었습니다. 이후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장비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필요한 경우 반도체공동연구소의 다양한 공정 장비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잘 활용하고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기본공정교육 실습을 통해 이 곳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기관 등을 대상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료가 아무래도 공학적인 배경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난이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정기 교육에서도 관련된 배경지식에 따라 이해도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자의 배경지식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반도체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채우고 물어보며 교육 과정을 거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도체 공정이 궁금하거나 공정과 관련하여 배우고 싶지만 마땅한 강의나 교육을 아직 찾지 못한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으며, 반도체를 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 짚은 꼭 들으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학부 수업 등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공정에 대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수업을 먼저 하고 어느정도 배경지식을 갖춘 후에 이론 내용으로 보강하고 실습을 진행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던 눈으로 내 공부를 본 경험에 대하여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장O

저는 기초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 시행하는 교과 연계 글쓰기 지도 프로그램(SNU-WAC)에 2021학년도 2학기, 2022학년도 2학기 두 학기 동안 대학원생 글쓰기 튜터로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교수자의 학부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수강생은 글쓰기 과제물을 작성하는 동안 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을 갖춘 대학원생 글쓰기 튜터에게 서면 피드백 및 구두 피드백(Zoom)을 받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미술사 학과의 학부 전공 수업 <유럽의 17·18세기 미술>과 <19세기 서양미술>에서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소논문을 작성했고 대학원생 글쓰기 튜터는 소논문 프로포절 작성 단계와 최종 소논문 제출 단계에서 한 차례씩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저는 2021년과 2022년 동안 관악학생생활관과 기초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학생 통합 피어튜터링 프로그램, 경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실습형 메타버스 입문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교과 연계 글쓰기 지도 프로그램을 고른 이유는 제가 이 프로그램에 튜터로 참여하여 수강생들의 소논문 작성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저 또한 튜터링을 통해 성장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수강생들이 한 학기에 걸쳐 작성하는 소논문의 형식은 제가 전공 수업마다 작성하는 소논문의 형식과 같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서 소논문을 작성할 때 저는 글을 쓰는 것에 급급해서 제 글의 어디가 틀렸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논문 작성을 지도하는 교수자로서 소논문에 접근했던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비로소 어떤 소논문이 좋은 소논문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어떤 미술사 연구가 좋은 미술사 연구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역사교육과 학부를 졸업한 저는 일반사학 연구 방법을 몸에 익힌 채로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술사학과 대학원에 온 이유는 미술 작품이 시대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지도교수님께서 제 생각대로라면 작품은 큰 역사 흐름에 대한 삽화에 그치지 않는다면 미술사는 '작품의 역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학원 입학 후 두 학기가 지나가도록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해하지 않으려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술사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고치지 않고서도 매 학기 소논문은 그럭저럭 썼기 때문에 저는 제 공부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세 번째 학기를 시작하며 저는 교과 연계 글쓰기 지도 프로그램의 튜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받은 프로포절들은 주장이 있는 글이라기 보다는 소논문의 대상이 되는 그림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시대사를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첫 상담 시간, 저는 수강생에게 자신만의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강생은 본인은 대충 주장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야 작품을 꼼꼼히 보신 후 작품에 대한 주장을 하셔야지요." 아무렇지 않게 입 밖에 낸 제 말에, 수강생 보다는 제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연구의 대상이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는 문헌 사료를 주목하는 다른 사학 분과들과 다릅니다. 즉 미술사 연구는 한 작품을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그 작품이 왜 특별한지

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학부생들이 쓰는 소논문에서든 석학들의 논문에서든 미술사 연구에서 작품은 기존 맥락에서 벗어나 재맥락화되어야 합니다. 첫 상담 기간 동안 저는 수강생들과 좀 화면에 작품을 띄워놓고 30분 내내 작품에 대해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이 작품이 마음에 들었나요? 이 작품은 비슷한 주제의 다른 작품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 작품에서 어떤 점이 비논리적인가요? 30분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1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했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시간 내내 저는 수강생들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품의 시대 배경은 말 그대로 배경으로,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작품과 시대의 연결에 대해서는, 이제 작품이 시대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작품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지가 제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교수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교과 연계 글쓰기 지도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내 학생'에 대한 책임감은 제게 새롭고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부생들이 소논문 작성에서 겪는 고충들을 계속 확인하게 되었고 그를 해결할 방법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전반적으로 두 가지 사항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수강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중등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부생들은 대학 수업을 통해 글쓰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필수 교양과목인 <글쓰기의 기초>는 단순한 작문 수업이고, 다른 전공 수업에서는 주로 소논문이 아니라 레포트를 쓰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자신의 주장을 처음 작성한다며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조금 커지더라도 전공 수업들이 레포트 대신 소논문을 과제로 내준다면 학생들은 소논문을 점점 더 쉽고 빠르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공 수업의 교수님들이 교과 연계 글쓰기 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면 해당 전공과목들을 수강하는 학부생들은 어려움을 덜 겪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양미술사 연구에서 중요한 서적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아 수강생들이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서양미술사 연구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수강생들을 달랬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나 국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아닌 이상 평범한 학생들은 영어로 편하게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어로 정보를 습득해오던 학생들은 영어 단행본 및 논문과 심리적 거리감이 큼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얼마 안 되는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들에만 의지하게 되고, 수집한 자료가 빈약하니 좋은 주장을 만들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학과의 교수님들은 주요 연구서들은 서양미술 연구자들만 읽고 서양미술 연구자들은 영어를 편하게 구사하는 엘리트들이니 연구서 번역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어 연구서를 능수능란하게 읽는 서양미술 연구자는 서양미술사에 재미를 붙이는 학부생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학부생들이 소논문 상담 시간에 토로하는 이러한 고충들은 인문대학의, 최소한 미술사학과의 학문후속세대 부족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생들은 훗날 교수자가 되어 학부생들의 어려움과 국내 학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부터 여러 문제점을 접하는 것은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교과 연계 글쓰기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으로 이 수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수자가 모든 학생의 소논문을 꼼꼼히 지도하기는 어려우니 전공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학생들의 소논문을 1대1로 지도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교수자가 학생들의 소논문을 섬세하게 피드백할 수는 없더라도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두 차례의 상담 중 첫 번째 상담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간단히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튜터의 첨삭을 반영한 프로포절을 교수자가 검토하여 해당 프로포절대로 진행해도 될지 그 여부만 알려주셔도 수강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소논문 작성을 진척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수자의 말 한마디를 의지로 삼고 그 말 한마디에 위안을 얻습니다. 이는 제가 교과 연계 글쓰기 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얻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삶의 본질적 여유와 의미를 깨닫게 된 순간

간호대학 간호학과 장OO

2022년 동계 글로벌 SNU공헌단(우즈베키스탄) 프로그램 소개

글로벌 SNU공헌단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동계 글로벌 SNU공헌단은 네팔 룸비니·요르단 이르비드·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인도네시아 롬복 총 4개 지역에 파견되며, 각 국가에서 수행하게 될 주요 활동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질을 가진 학생단원(학부생)과 자문단원(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운영합니다.

제가 자문단원으로 참여한 2022년 동계 글로벌 SNU공헌단(우즈베키스탄) 프로그램은 크게 유아 교육봉사과 의료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의 유치원을 방문하여 교육 나눔을 실시하고, 이어서 현지 유아교육 관계자들과 교육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지 병원과 연계하여 무료 진료 및 보건·의료 캠페인 활동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 동계 글로벌 SNU공헌단(우즈베키스탄) 프로그램 활동 내용

저는 2022년 동계 글로벌 SNU공헌단(우즈베키스탄) 프로그램의 자문단원으로서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되는 정기 기획회의에 참여하여 학생단원들이 양질의 봉사활동을 구상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5일에 실시한 1차 기획 회의에서는 최종 선발된 13명의 학생단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며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앞으로 사용할 팀 이름·구호·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할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일에 실시한 2차 기획 회의에서는 간호사와 보건교사로 근무했던 경험과 대학원에서 아동간호학을 전공하며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유아기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특성, 우즈베키스탄 유아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 다루면서 학생단원들이 유아 교육봉사를 구상하며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수준, 고혈압 및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개선 방법에 대해 다루면서 학생단원들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사과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8일과 15일에 실시한 3·4차 기획 회의에서는 학생단원들이 구상한 유아 교육봉사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점검하였습니다.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도하고, 필요한 교구의 구입이 예산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2일과 29일에 실시한 5·6차 기획 회의에서는 학생단원들이 구상한 의료봉사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문진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과 혈압 및 혈당 측정 방법을 교육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하여 식습관 개선 및 신체활동 증진 캠페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3일과 20일, 27일에 실시한 7·8·9차 기획 회의에서는 현지에서 함께 활동할 사마르칸트 국립대학교 학생들과 Zoom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영어로 소통하며 그동안 구상해온 봉사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하였고 각자의 역할을 실제로 직접 수행해보면서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부분에 대해 상호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 1월 3일과 10일에 실시한 10·11차 기획 회의에서는 문화교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풍속을 소개할 수 있도록 사물놀이·부채춤·태권도 군무 등을 공연할 단원,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행하고 있는 K-pop 노래와 춤을 공연할 단원을 나누고 연습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7일에 실시한 12차 기획 회의에서는 출국 전 필요한 의료 조치(장티푸스 및 파상풍 예방접종, 코로나-19 PCR 검사 등)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단원과 개별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는 매일 모여서 현지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위탁수화물 무게 기준에 나누어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1월 30일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동계 글로벌 SNU공헌단(우즈베키스탄) 프로그램 참여 성과 및 소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퇴근 후에 매 학기 대학원에서 12학점의 교과목을 수강하며 틈틈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매주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정기 기획회의에 참여하고 수시로 학생 단원들이 요청하는 자문에 응답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2022년 동계 글로벌 SNU공헌단(우즈베키스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역설적으로 삶의 본질적 여유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아동간호학은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의 대상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측면을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단원들이 유의미한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지원하면서 저는 삶과 삶이 일치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문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의 의료 수준 및 실태를 조사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간호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주제로 고민하며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좋은 어른·참된 교사가 되기 위한 인간적 성숙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개성과 철학을 가진 학생단원들과 뜻깊은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감한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생생하게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제 학생 중 다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식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2022년 동계 글로벌 SNU공헌단(우즈베키스탄) 프로그램 활동 증빙사진



[활동 증빙사진]

창업을 향한 새로운 꿈과 가시적인 계획을 세우게된 기회

국제대학원 지역학과 전OO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지역학과에 재학중인 전OO입니다. 대학교때는 중국어를 공부하였고 현재는 중국정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때 여성들 가방, 옷, 수영복 등을 중국에서 싼 값에 구해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며 본격적으로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이 된 지금,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선뜻 무언가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창업은 차치하고 제가 맡은 공부를 소화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종강 후 어떤 것을 해야할까 알아보던 중 경력개발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을 빼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와 아자스쿨이 주관한 '체험형 창업 부트캠프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의 성지인 테헤란로에서 스타트업 탐방시간을 가지고, 투자자분들과 직접 만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피칭대회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트업 공유오피스 탐방과 체험, Series-A/B 스타트업 탐방, 스타트업 대표이사 및 직원들과의 질의응답, 벤처캐피탈 방문 및 투자심사역 미팅, DemoDay 심사 가상 참여 및 직관, 스타트업을 위한 시스템 톨 및 지원체계 이해, VC, 공유오피스, 벤처기업가 등과 네트워킹(명함주고받음). 해당 프로그램덕분에 창업을 이론적인 이해에서 그치는게 아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창업 씬에 있는 분들이 해주시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처음으로 창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였는데 만족스럽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책이나 창업관련 유튜브에서 볼 수 없었던 팁들에 대해 많이 알게되었고 스스로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VC,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명함을 주고받으며 제가 본격적으로 창업에 뛰어들어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한 것도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참여 후 창업을 거창하게 생각하던 자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과 29일에 참여했던 캠프라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제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창업을 거창하게 생각하던 스스로가 이를 '시작'했다는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자스쿨 황선하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이 제일 와닿았습니다. '창업 성공률은 10%이다. 즉 10번 창업하면 1번은 성공한다.' 이 말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창업실패'라는 것이 굉장히 막중하고 제 인생을 위협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하고싶은 것들은 선뜻 시작하지 못했었습니다. '완벽'하게 하여 이를 '성공'시켜야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틀린 후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깨닫는 것처럼 창업은 처음부터 성공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일단 해보자'는 마음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니다. 그 후 성공에 대한 집착과 거창한 것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국가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ESG 관련 분야의 사업을 첫 창업으로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거창하게 시작하여야할거같고, 창업에 앞서 ESG 분야를 제대로 공부해야한다는 생각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참여 후에는 뭐라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현재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Reactive Native로 앱 개발에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황선하 대표님 말대로 10번의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어 첫 시작은 석사 공부를 유지하며 할 수 있는 앱개발로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참여 후 후기를 묻는 친구들에게 창업에 딱히 관심이 없더라도 경력개발센터에서 주최하는 창업관련캠프를 한번이라도 가보라고 추천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 살면서 '대기업 취업' 혹은 석사생으로서 '박사 진학 후 교수, 연구원'의 진로를 알게모르게 강요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런 길이 있구나라는걸 직접 보고 느낀다면 시야확장과 진로설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퀄리티가 좋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여 딱히 제안할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제가 경험했던 것 중 이 2가지를 꼭 포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창업프로그램이라면 DemoDay가 일정에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 전에 참여한 학생들의 후기를 참고하며 진행회사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DemoDay 스케줄을 맞추는게 힘들었고 이를 직관할 수 있었던 저희는 운이 좋은거라 말해주셨습니다. 당시 데모데이를 직관하며 요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트랜드라든지,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현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일처리방식, 열정 등 모든걸 집합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업프로그램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데모데이를 다음 프로그램에도 포함시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선생님들, 진행자분들로 구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프로그램때 쓰인 단톡방에 여러 창업관련 정보와 기사를 정리해 보내주시며, 저희의 성공을 빌어주십니다. 모든 일의 흥망성쇠는 '사람'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저희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선생님들의 가이드를 받은 것이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결국 이것이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창업프로그램도 그 전에 참여한 학생들의 후기를 참고하여 진행회사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밝은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신 아자스쿨 대표님, 선생님들,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생각해주는 진심이 진정으로 느껴졌고, 저희를 프로그램 소비자가 아닌 잠재력 있는 씨앗으로 대해주셨습니다. 5-10년 후에는 서울대 대학원 출신 창업 성공자로 창업 꿈나무들에게 강의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꿈도 생기고, 가시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창업하고 싶다.”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OO

최근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이다. 통계를 보면 실제로도 그렇다. 재작년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과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창업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새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나 역시도 오래전부터 창업에 대한 꿈을 마음 속에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멀어 보였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창업 유치원

그러던 중, 작년 6월에 시흥캠퍼스본부에서 주관하는 “LAUNCHPAD SNU IGNITE Build-up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름이 길지만, 쉽게 말하면 “창업 유치원”과 같았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잠재창업자들이 1박 2일 동안 팀빌딩을 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실습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창업의 첫 시작을 간단히 경험해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소위 창업을 “찍먹(찍어 먹기: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 경험해보는 행위)” 해보며 창업에 한 발짝 다가가 보고, 추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멘토링을 받는 등 창업에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1박 2일이라는 캠프 기간은 창업을 경험한다기에 다소 짧았지만, 알찬 프로그램 덕분에 아쉬움은 없었다. 캠프 프로그램은 산업 동향 특강, 비즈니스 특강, 아이디어 피칭 등으로 구성되었다. 항공, 바이오, 플랫폼 등 참가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 해당 산업 동향에 대해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며,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는 방안을 학습했다. 또한 구성된 팀과 실제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실습해보고 이를 이튿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발표하며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 캠프의 꽃은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던 아이디어 경진대회였으며, 창업을 배우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다. 어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등 캠프 참가자들의 전공이 다양했기 때문이었는지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다루어졌다. 팀별로 발표한 아이디어에는 그들이 전공자로서 혹은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통찰하고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심사위원분들의 피드백과 함께 다른 팀의 질문과 제안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좋은 에너지

다른 참가자들의 좋은 에너지도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이다. 유난히 느낀 것은 바로 함께 했던 참가자들의 지적 호기심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전공과는 무차별 영역(indifference zone)을 다루는 아이디어라도 적극적으로 경청하였고, 어려운 용어와 내용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질문하며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

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이는 서로를 사람 대 사람으로 알아가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활발한 사람들과 함께하니 나도 좋은 에너지를 얻어서 캠프가 더욱 즐겁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

9명 사공의 팀

팀빌딩을 할 때 관심 분야에 따라 팀을 구성하였는데, 그 중 내가 속했던 “플랫폼” 팀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다른 팀은 보통 4~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에 반해, 우리 팀은 9명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 많은 인원에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하니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좋았다. 그것도, 그저 보여주기 식의 허울뿐인 아이디어가 아닌, 모든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시사성과 명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원도 많고 의견과 아이디어의 양도 많다 보니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 지연되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마일스톤을 설정하여 계속해서 엄격하게 시간 관리를 했던 것 같다.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다수가 참여하는 팀 활동이라면, 소수의 누군가는 게으른 꿀벌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다. 때로는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이해하고 있고, 몰입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었다. 모두가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였고, 9명의 사공이 각자 다른 역할로 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바지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인지 경진대회에서 1등 팀으로 선정되었다.

창업 유치원 수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이라는 것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창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막연하고 어떠한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며 주변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서 사업성과 수익성을 평가하여 한 단계씩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창업을 대한 관심은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정이 있어 본 캠프의 후속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못 했지만, 캠프에서 만났던 다른 학생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창업 기회를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다. 어쩌면 이 프로그램은 잠재창업자들이 창업 시작 과정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서울대학교 내에서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목표로 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이미 시작했지만, 팀원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캠프 일정 상 아이디어 경진대회 때 Q&A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는 것을 남기고 싶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다른 팀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관심과 질문이 많았음에도 그것을 다 다루지 못 했다.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Q&A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이나 새로운 영감을 줄 만한 질문들이 많았다. 추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Q&A 시간을 늘려 참가자들 간에 상호작용하며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너지를 낼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Quo Vadis?” 스타트업 꿈을 꾸고 있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박OO

많은 대학원생들은 공감할 것이다. 각자의 연구주제를 갖고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번뜩이는 아이디어 혹은 학술적 가치를 넘어서 상업성이 뛰어날 결과물을 얻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다. “사업화를 해보면 어떨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업화할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의 꿈을 접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어떻게, 어디서,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와 같은 질문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 필자 또한 박사학위 논문 연구 과정에서 얻게 된 혁신적인 결과물로 바이오기술 상용화 기반 비전 달성을 위해 스타트업에 관심 갖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만 진행해오던 순진한 공대생에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꿈을 접으려던 찰나, SNU공학컨설팅센터에서 제공 중인 창업지원사업 상담창구의 도움을 받고 스타트업의 갈피를 잡게 되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스타트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수기를 쓴다.

창업지원사업 상담창구의 대상자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로, 1:1 방식으로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멘토링이라는 취지에 맞게 주로 사업계획서 검토, 투자, 지식재산권, 해외진출, 회계, 법률, 등 창업을 과정에 있어 필수요소들을 점검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 필자는, 학교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고 간단한 지원 서식 작성 후에 미팅날짜를 잡아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과 동시에 막막함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참여하게 되었다. 필자가 가장 궁금하고 도움을 받고 싶었던 부분은 “투자”이다. 정확히, 투자자와의 만남부터 시작해 투자 과정 중 단계와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자가 사업의 성공에 가지는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간단한 사업아이템에 관한 ppt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멘토분께 설명을 해 드렸고 우리가 시드 투자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에 대해 큰 도움을 얻었다. 투자의 단계는 상장 전까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기반으로 인한 시드머니투자, 두 번째는 창업 후에 받는 시리즈 투자로 이때의 투자는 단계별로 진행된다.

필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예로 들어 서술하자면, 투자자는 단순히 사업자금만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안정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그렇기에 투자자는 필수적으로 투자하려는 사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알아볼 식견과 안목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연히 하계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필자에게 첫 발판이 될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을 추천해 주셨다. 이는 필자의 창업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사업아이템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최대 1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1차 멘토링을 받고 난 후로 알맞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였고 조만간 2차 멘토링을 가질 예정이다. 2차 멘토링 때는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로 매우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다.

추후, 도움을 예비창업자로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8개월간 성과를 내어 법인설립 혹은 개인 사업자 등록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개발된 프로토타입으로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창업 경진대회참여 및 투자를 받기 위한 엑셀러레이터, VC 등을 소개받을 수 있는 경로에 대하여 도움도 주시고자 하신다.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막 창업의 첫발도 내딛으려는 병아리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오늘 수기에서 소개한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현 단계의 진단과 창업 후 투자 유치 단계와 관련하여 차근차근 정확하게 지도받을 기회였고 앞으로도 (아마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받을 예정이다.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글을 적게 되었다.

다만,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이 가진 아쉬웠던 점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 이메일로 접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스팸으로 분류하거나 읽지도 않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이용한다면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멘티로서 프로그램의 도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언과 함께 글을 마치려고 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멘토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창업자가 아닌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다. 그렇기에, 멘티가 구상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에 대한 소개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간단하게라도 준비해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하고자 하는 사업소개서와 (ppt혹은 제안서) 도움받고 싶은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간다면 더욱더 효율적인 멘토링이 될 것이다.

2023 대학원생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수기

2023.02.06
<https://career.snu.ac.kr/student>

문의

02-880-2520
snulink@snu.ac.kr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